

손창섭 소설에서 나타나는 부정성의 의미 변화에 관하여

- <잉여인간>과 <낙서족>을 중심으로 -

이 현 석*

차 례

1. <신의 회작>을 둘러싼 해석적 갈등
2. 추상적 긍정과 금욕
3. 고양된 이념과 향락의 착종
4.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은 손창섭 소설에서 나타나는 현실 인식의 변화이다. 손창섭의 소설은 초기소설과 <잉여인간> 이후 소설 사이에 현저한 의미 변화를 보여준다. 논문에서 변화의 주요인으로 지적한 것은 현실 부정에 대한 작가의 인식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초기 소설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무기력한 일상 속에서 현실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들에게 현실은 주체 자신을 포함하여 모두 무가치한 것이다. 인간이 기보다 차라리 '목석'이기를 희망하는 그런 관점이 초기소설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다. 여기에 성적인 요소는 언제나 주변적인 위치에 배치된다. 성적인 관계가 나타나지만 주체가 성적 욕망을 가지지 않거나 못 한다는 점에서 성은 서사의 지배적인 요인이 아니다.

그런데 <잉여인간> 이후 소설들에서 성적인 관계는 서사의 전면에 등장

*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하게 된다.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그대로이지만 주체의 행위는 성과 폭력을 통해 이 부정성을 현실 속에서 구현해낸다. <신의 회작>에서는 작가가 자신의 왜곡된 형상 속에서, <낙서죽>에서는 허황된 민족주의자의 모습 속에서 성과 폭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분노의 표시이자 주체 자신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다. 손창섭 소설에 대한 연구들은 여기서 해석적 단초를 찾는데 이러한 폭력성이야말로 손창섭 소설에서 문제적인 지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해석은 이 폭력성을 토대로 하여 초기소설들에서 숨겨진 성적인 요소들을 재해석하는 방향을 취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이것은 후기소설로부터 초기소설 속에 내재된 의미를 사후적으로 재구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의미의 연속성이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그의 소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후기소설로부터 도입된 이 연속성보다는 불연속적 단절의 개념이 더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한다면 손창섭 소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초기소설과 <잉여인간> 이후의 소설에는 분명한 의미론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이 차이가 어떻게 초래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그것을 <잉여인간>에서 형식적으로 취해진 긍정성의 도입이라고 파악한다. 초기소설과 <잉여인간> 이후 소설의 부정성의 의미 차이를 유발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긍정이 은밀한 방식으로 서사 속에 기입되었고 그 추상적 긍정성이 주체가 현실에 대한 폭력적으로 개입하게 만드는 숨겨진 ‘매개자’가 되었다고 본다. ‘사라지는 매개자’로서의 이 긍정성이 주체로 하여금 현실 속에서 자신을 재의미화하는 동기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 대한 극단의 부정을 불러오는 동시에 일그러진 형상으로서의 욕망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든다. 본고에서 이 변화를 초래한 <잉여인간>을 분석하고 그 변화의 의미를 <신의 회작>에서 보이는 극단적인 자기부정과 <낙서죽>에서의 현실 비판의 두 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해석해 본다.

주제어 : 부정성, 사라지는 매개자, 이념, 추상적 긍정, 금욕, 향락

1. <신의 희작>을 둘러싼 해석적 갈등

손창섭 소설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논의의 중심에 놓여 있는 텍스트는 <신의 희작>(현대문학, 1961)이라 할 수 있다. <신의 희작> 이전과 이후의 작품 경향이 현저히 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이 그의 전체 작품 해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까닭이다. 이는 <신의 희작>에 대한 문학 내적인 평가의 측면에서라기보다 그것이 가지는 자전적 성격의 문제성에 기인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지적될 것은 <신의 희작>이 발표된 이후 손창섭 소설에 대한 해석의 방향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신의 희작> 이전에 발표된 소설들에 대한 당대의 평가는 주로 음울한 일상의 삶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불구적 인물들이 가지는, 인간에 대한 깊은 모멸감을 지적하고 그 과도한 부정성을 비판적으로 언급하는데 중심이 놓여 있었다. “병자에 대한 관심과 불완전한 인간에 대한 동정이 건강하고 완전한 인간에 대한 추구와 창조”로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조연현의 평가¹⁾는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손창섭 소설만의 독특한 현실 해석의 관점에 대한 문단의 주목과 함께 나타난 이러한 평가는 4회 동인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잉여인간>(사상계, 1958)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동인문학상 선정작품에 대한 평을 쓴 김우종의 다음과 같은 말에도 그 잔영이 드리워져 있다.

손창섭의 문학은 얼마동안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어떤 분노의 폭 발처럼 인생을 저주하고 야유하는 문학에서만 정열을 소비해 왔다. 그것은 모두 부정적인 인생관의 표현이었다. 그는 무엇 때문에 그처럼 부정만을 계속해 왔을까? 결국 그것은 어떤 새로운 긍정의 세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이었을까? 사실로 철저한 긍정은 철저한 부정에서부터 비롯해야 한다. 인생의 참된 보람을 알려면 먼저 인생이 얼마나 너절한

1) 조연현, 「병자의 노래」, 『현대문학』, 1955. 4. 79쪽.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그의 초기의 대부분은 <잉여인간>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세계를 모색하기 위한 기초작업이었을까? 나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만 그러한 좋은 전환을 보인 작품에 대하여 상이 수여된 것은 역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할 따름이다.²⁾

김우중의 평가는 이전의 작품들이 “<잉여인간>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세계를 모색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인생에 대한 ‘저주’와 ‘야유’의 문학에 대한 자기 비판이 <잉여인간>이기에 동인문학상의 수상이 기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잉여인간>의 주인공 서만기는 이전 소설의 인물들과는 대척점에 서는 존재로 “긍정적인 세계를 모색”하는 인물상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작품에 동인문학상을 수여한 문단의 평가는 주제 변화를 창작관의 바람직한 전환으로 보는 것이었다. 손창섭의 소설 변모에는 작가 자신이 추구한 소설적 변화의 측면과 함께 이러한 변화를 요구한 당시 문단의 요청이 수용된 측면이 있음이 이러한 대목에서 드러난다.³⁾

여기서 주목될 수 있는 것은 초기 손창섭 소설에 대한 평가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는 점이다. <잉여인간> 발표 1년 후 그가 <낙서죽>(사상계, 1959)에서 긍정적 인간형과 더불어 초기 소설의 냉소적 관점을 다시 보여주었을 때 그에 대해 찬반논쟁이 다시 일어났다. 반대 측에서는 적극적 현실 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그의 소설을 평가절하하였다.⁴⁾ 다시 말하자면 그의 초기작품들에 대한 당대 해석에 있어서 사전적 요소나 정신분석학적인 대상이 되는 성적인 함의들을 찾는 것은 비평의 중심 의제가 아니었다. <신의 희작>의 발표는

2) 김우중, 「동인상수상작품론」, 『사상계』, 1960. 2. 257쪽.

3) 동인문학상을 제정한 『사상계』의 문학회념이 문학의 공리적 기능과 긍정적 윤리성의 확보에 있었다고 파악하는 김건우의 논의는 이에 좋은 참조점을 제시하고 있다.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4) 백철·김동리·김우중·유종호·이어령, 「낙서죽을 읽고」, 『사상계』, 1959. 4. 315-323쪽. 참조

이러한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전 소설들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그 해석은 점차 세계 인식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텍스트에 내재한 작가 의식의 문제에 집중되게 된다.

<신의 희작> 이후의 소설들에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하나는 텍스트에서 직접적으로 형상화되는 폭력적인 성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공간 안에서 행해지는 주요인물들의 행위에 대한 해석의 문제다. 먼저 폭력을 동반한 성적 행위들은 초기 소설에서는 보이지 않던 증상적인 지점을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성적 문제가 작가의 내밀한 신경증적 증상을 드러내는 요인으로 해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의 소설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이 연구의 중심적인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신의 희작>의 주인공 S가 ‘삼류작가 손창섭’이라 부연됨으로 해서 자전적 관계를 지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작가의 전기적 사실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 분석은 그 속에 그려진 주인공의 행동양식을 해석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기에는 주인공과 어머니 사이에 나타나는 과잉된 애증 관계나 야뇨증, 성폭행 등 정신분석적 논의를 유인하는 요소들이 있어 정신분석학적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작용한 점도 있다. 프로이트 심리학을 바탕으로 손창섭 소설의 전모를 검토한 조두영의 논의는 이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⁵⁾ 그리고 자전적 성격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논의를 확장하여 그의 소설을 자전소설의 관점에서 보면서 그와 함께 세대론적 의미에 대하여 살피고자 하는 시각도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⁶⁾

이러한 해석의 방향은 그의 초기소설을 <신의 희작>을 통해 재독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 속에서 정신분석의 대상이 되는 증상들을 사후적

5) 조두영, 『목석의 울음』, 서울대출판부, 2004.

6) 방민호, 『한국 전후문학과 세대』, 향연, 2003.

으로 재의미화 하는 것이다. 이는 그의 초기소설에서 문제의 중심에 놓여 있지 않았던 것들이 해석의 중심으로 옮겨왔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서사론적인 측면에서도 해석 변화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신의 회작> 이전 작품들에서 성적 관계들은 언제나 무기력한 주인공의 주변에 잠재되어 있을 뿐 중심서사의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 초기 소설들에서 성적 관계는 배경적인 요소로서 주인공의 무기력한 일상 주위에 산포되어 있으며 그것이 어떤 행위를 촉발하지는 않는다. 등단작인 <공휴일>(문예, 1952)에서 결혼을 두려워하는 주인공 도일이나 <미해결의 장>(현대문학, 1955)에서 몸을 파는 광순에게 의지하는 '나', <유실몽>(사상계, 1956)에서 누나집에 기숙하는 무기력한 주인공 '나'의 모습 등은 성적인 관계에 거리를 두고 있거나 무관심하기조차 하다.

반면 자전적 성격이 강한 <낙서족>과 <신의 회작>에서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이 서사의 중심에서 형상화된다. 이 두 텍스트의 이러한 성적 요소들은 이전의 텍스트들까지도 오이디푸스적 갈등 관계의 틀에서 재구해내려는 연구 경향을 유발시켰다. 그러나 작가의 삶의 궤적으로부터 이러한 부정적 세계인식의 근원을 발견하고자 하는 분석은 무엇이 이와 같은 극단적인 변화를 유발했는가 하는 점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에 봉착한다. 초기소설들에 내재하는 나르시시즘이나 마조히즘⁷⁾이 이후 사디즘적이고 공격적인 경향으로 변화된 것을 두고 단순히 초기 텍스트들이 작가의 도착적인 일면을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혹은 이러한 문제를 작가의식의 영역 내에서 해소함으로써 전후의 불모적 상황성 내에 위치되었던 그의 소설들의 문제성을 사적인 의미망 안에 가두는 것 역시 올바른 방식이라 할 수 없다. 여기에는 이 두 측면을 연결하는 매개적 개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낙서족> 이후 60-70년대 장편소설들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그

7) 김윤정, 「손창섭의 소설 : 나르시시즘과 죽음의 문제」, 『한양어문연구』 13, 1996. 12. 양소진, 「손창섭 소설에서 마조히즘의 의미」, 국제비교한국학회, 2006. 12.

의 소설이 유폐된 사적 공간에서부터 벗어나 사회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후기 소설들에서 형상화되는 사회적인 문제들은 신문연재소설이 가지는 한계에서 세대소설로 평가받거나 성장소설의 형식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곤 한다.⁸⁾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의 소설이 역사나 사회의 문제를 다룰 때 총체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이 형상화되는 사건들은 언제나 주인공의 사적인 삶과 기묘하게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항상 성적인 담론들과 결부되어 나타나는데 <낙서족>에서 도현이 민족적 차별에 대한 분노를 노리꼬에 대한 폭력적인 성행위를 통해 해소하거나 「길」(1968, 동아일보 연재)에서 순진한 시골청년 성철이 서울에 올라와 겪게 되는 성적 유혹에 대한 거부감을 윤리적 타락의 관점에서 드러내는 것, 그리고 70년대 신문연재 소설인 『유맹』(1976, 한국일보 연재)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고민하는 성기가 자살에 이르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은 일본인 여자친구와의 결혼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는 점 등은 그 예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의 후기소설에서 이념적인 문제들이 성적 관계와 중첩된 방식으로 제시된다는 점은 그의 서사전개 과정에서 볼 때 대단히 특징적인 일면이다.

정신분석적 논의들이 주로 소설의 자전적인 성격에 착목하고 있어 해석에 오히려 제약적인 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점을 반성해보면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신의 희작>을 중심으로 구성된 논점들에서 배제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는 초기 소설에

8) 손창섭의 후기 장편들에 대한 연구의 시발점이 된 것은 <작가연구>(1996. 4)에서 손창섭 장편들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이후라 할 수 있다. 차준호의 「손창섭의 <길> 연구 : 성장소설과 관련하여」(『경남어문논집』 11, 2000)이나 김명임의 「손창섭의 <이성연구> : 체념의 미학과 통속의 기호들」(『한국학연구』 12, 2003) 등에서의 관점은 후기장편소설을 세대소설이나 성장소설의 관점에서 다룬 것이며 <유맹>(1976년 한국일보 연재)은 제일 한인의 문제(강진호, 「제일 한인들의 수난사 : 손창섭의 <유맹>론」)로 접근하거나 세대론적 관점(방민호, 앞의책)에서 다루어졌다.

서 형상화되는 무기력한 인물들이 그려내는 부정적 세계 인식의 문제와 <낙서족>이나 <신의 회작>에서 보이는 폭력적이고 적극적인 주체의 행위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의 의미를 되묻고자 한다. 이에 대한 분석은 우선 두 가지 접근방식을 취한다. 첫째, 이 극적인 변화 과정에는 분석의 과정에서는 쉽게 배제되었으나 ‘사라지는 매개자’⁹⁾로서 그 변화의 원인이 된 징후적인 지점이 존재한다고 전제한다. 그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잉여인간>에서 일시적으로 발현되었던 과도한 긍정성의 의미라 할 수 있다. 본고는 그런 점에서 <잉여인간>을 그 전후의 소설들과 비교하면서 분석을 전개시키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초기 단편 소설에서 후기 장편소설로의 이행에서 나타나는 서사 방식의 변화를 재구해 보고자 한다. 활력이 없는 무능한 주체의 서사에서 자신을 사회적 관계 속에 기입하고 그것을 극단적 분노로 표출하는 주체의 서사로의 이행에는 대타자의 향락이라는 문제가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그것을 <잉여인간>과 <낙서족> 서사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

9) 지젝은 프레드릭 제임슨이 막스 베버에 대해 논의하면서 제시한 ‘사라지는 매개자’의 개념을 인용하면서 중세 공동체주의와 자본주의적 개인주의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서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역할을 분석한다. 그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중개 없이 직접 중세의 “단편” 사회로부터 부르주아 사회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프로테스탄티즘이 구교가 가진 제한된 ‘금욕’의 개념을 세속의 전 영역으로 확대할 때 그것은 부의 축적을 전면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기독교 자체를 부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프로테스탄티즘은 중세사회를 해체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로부터 생겨난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그 자체 의미가 부정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라지는 매개자’는 이처럼 변화의 필연적 동기가 되었던 요인이 새로운 문화적 장이 성립되면서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마는 상황을 초래하는 매개개념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라지는 매개자’의 개념은 본고에서 손창섭 소설의 극단적 변화를 설명하는 논리적 기제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손창섭의 <잉여인간>에 보이는 과도한 긍정성이 바로 그러한 지점에 놓인다고 보며 그것이 <낙서족>과 <신의 회작>으로의 극적 변모를 매개한다고 파악한다.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역,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사랑, 2004. 391-406쪽 참조.

에 대한 형상화 방식과 사건의 발생방식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추상적 긍정과 금욕

<잉여인간>에는 ‘균계일학’적 인물인 의사 서만기와 날마다 그의 병원으로 찾아오는 그의 두 친구 ‘실의의 인간’ 천봉우와 ‘비분강개파’ 채익준이 등장한다. 이 세 인물 각각의 성격규정은 다른 텍스트와의 상호관련성에서 볼 때 주목을 요한다. 결점이 없는 인물로 그려지는 서만기는 초기소설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았으며 이후 그와 비견되는 인물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이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를 중심으로 배치된 두 인물은 초기소설에서 초점화 되는 무기력한 인물의 전형을 보여주는 천봉우와 쉽게 분노하며 행동을 촉구하는 인물로서의 채익준이다.

먼저 천봉우는 간호사 인숙을 흠모하지만 오로지 집요한 시선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를 따라다니기만 할 뿐 그 욕망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꿈을 꾸듯 황홀한 시선을 인숙의 전신에 몰래 퍼붓는” 봉우의 “이상히 빛나는 눈”은 인숙에게 소름과 공포를 불러일으키지만 그것이 서사 속에서 어떤 파국을 불러오지는 않는다. 이러한 봉우의 모습은 <미해결의 장>에서 광순을 따라다니는 주인공이나 <미소>(신태양, 1956)에서 순결한 여자의 뒤를 쫓는 일인칭 화자의 모습을 쉽게 연상시킨다. 이들은 모두 욕망하지만 행위하지 않는데 그것은 적극적인 행위를 할 자격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그들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봉우로 대변되는 인물의 특징과 그 서사 내적 의미를 초기소설에서 주체가 상징적 관계 내에서 자리하는 방식을 재구해 보기로 한다. 다음은 <미소>의 한 대목이다.

“한번만 웃어 주십시오. 기독교 냄새를 풍기는 맑고 부드러운 그 미소를 한번만 더 보여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사정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貴嬢은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란 표정으로 슬슬 몇 발짝 뒷걸음을 치더니, 그만 획 돌아서서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나도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貴嬢의 뒤를 쫓아 들어갔습니다. “소원입니다. 한번만 웃어주십시오. 얼른 그 투명한 미소를 한번만 더 보여 주십시오!” 나는 거의 울상이 되어, 貴嬢에게 매어달리듯이 애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즉석에서 나는 너댓 명의 사내에게 붙들려 교회당 밖으로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¹⁰⁾

<미소>는 주인공 ‘나’의 다섯 편의 서신으로 구성된 단편으로, 서술자인 ‘나’는 자신의 글을 이해해줄 수 있는 여자외만 결혼할 수 있다고 믿는다. <미소>에서 그려지는 여자의 미소는 지나치게 맑고 투명하여 거기에 침을 뱉고 마는 것, 언제나 스쳐지나가는 것이며 ‘내’가 다가서면 사라지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실체’로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실 속의 내가 직접 다가섰을 때 이 다가섬은 미소를 띤 그녀로 하여금 얼굴을 찌푸리고 뒷걸음치게 만든다. 텍스트에서 ‘나’는 “열두 제자 중에 가장 인간적인 유다”로 비유되는데 유다가 신을 배반함으로써 신을 증명하지만 그것이 파국을 불러오는 것과 같이 자신만이 여자의 투명함을 깨닫지만 자신이 다가서면 그녀는 고통을 받게 된다고 생각한다.

인용된 부분에서 ‘나’는 자신을 피해 교회당으로 들어간 그녀에게 달려들지만 사람들에게 의해 끌려나온다. 자신을 유다로 간주하는 관점과 교회당으로부터 내쳐지는 이 상황은 주인공이 현실에 어떤 자리에서 있는가 하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 장면은 그의 욕망이 현실에서 금지당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유다가 배척당하는 논리를 재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순결한 여자만이 그를 구해줄 수 있으나 그녀와의 불가능한

10) 손창섭, <미소>, 『현대한국문학전집3』, 신구문화사, 1965. 283쪽.

관계는 그 자신의 불순함만을 드러낼 뿐이다. 이러한 여자와 나의 관계는 초기 텍스트에서 주체의 욕망이 전개되는 특유한 방식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실 내에서 주체는 욕망할 수 없는데 그것은 그의 욕망이 허락받지 못하는 자리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교회당은 그런 점에서 그의 욕망을 금지하는 대타자의 상징적 형상과 같다. 주체 자신의 욕망을 금지시키는 것으로서의 대타자의 권위는 주체로 하여금 그 자신을 유다와 같은 존재로 간주하도록 만드는 내적 기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그 힘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명백히 초월적인 명령인데 ‘나’로 하여금 “그렇다. 나는 유다의 자손이래도 좋다. 나의 조상은 인간을 팔아 신을 빚내었을망정, 자신을 위해 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다.”¹¹⁾고 말하게 만든다. 그의 말 속에 내포된 것은 자신의 욕망을 신의 존재 증명 속에 도착적으로 기입하는 주체의 관점이다. 이 때 거부되고 금지된 주체의 욕망은 대타자 속에 내재된 향락¹²⁾을 자신의 것으로 전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 천봉우가 서 있는 지점은 <미소>에서의 ‘나’가 서 있는 이러한 인식론적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체의 추상적 발언이 서사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되는가 하는 점 그리고 주체의 욕망이 현실 위에 그려질 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그의 등단작인 <공휴일>(문예, 1952)에서부터 이 문제에 접근해 보기로 하자. 이 작품에서 주인공 도일은 약혼녀 금순과의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은 금순에게 파혼을 선언하기 위해 집을 나선다. 도일은 남녀의 ‘육체적인 관계’에 냉담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금순의 관계를 어항 속 미꾸라지와 붕어의

11) 손창섭, <微笑>, 위의 책, 281쪽.

12) 이때의 향락(jouissance)은 지체에 의하면 죄의식을 동반하는 쾌락이라 할 수 있다. 쾌락 내부에 외설적인 얼룩을 남기는 향락은 주체로 하여금 그 속에서 자신의 욕망의 어두운 일면을 발견하게 만든다. 나아가 주체의 도착증적인 향락은 타자의 향락에 자신을 종속시킴으로써 자신의 내밀한 욕망을 유지시키고 더 깊이 몰입하게 이끈다. 슬라보예 지젝, 이만우 역, 『향락의 전이』, 인간사랑, 2001. 335쪽 참조.

관계처럼 결합될 수 없는 이질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주인공은 아예 성적인 관계를 냉담하게 바라보거나 그로부터 아무런 매혹을 느끼지 못한다. 주인공 도일이 금순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성적인 관계를 무감각하게 여기는 것은 <미소>에서와 같이 순수한 남녀 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그 내부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남녀 간의 이상적 관계는 강박적인 가치 기준이 되어 성적 관계를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원인으로 작동한다. 남녀간의 이상적 결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남녀의 성적 관계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여기에 내재해 있다.

이러한 해석 관계는 텍스트에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변형되어 형상화된다. <비오는 날>(문예, 1953)에서 원구가 동옥을 그저 바라만보고 있는 상황이나 <미해결의 장>에서 내가 광순의 방에서 평온한 잠을 취하지만 그것이 그녀와의 관계를 욕망하는 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유실몽>(사상계, 1956)에서 창백한 모습의 춘자 앞에서 무기력하기만 나의 상황 등이 그의 초기소설에서 반복되어 그려진다. 이 같은 장면들은 주체의 쾌락은 금지되어 있으며 그 금지를 받아들여야만 욕망하는 대상에 근접할 수 있는 상황을 지시한다. 마조히즘적 주체가 스스로를 내맡기는 굴욕이 초자아의 신중한 감시를 눈속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면¹³⁾ 여기에 쾌락은 이 금지의 형식에서만 존재를 허락받는다. 욕망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대타자 앞에서 실연해보임으로써만 욕망은 겨우 보존된다.

초기 소설들에서 보이는 이러한 관계는 그가 「사연기 당선소감-인간의 배신」(문예, 1953)에서 말한 인간이 아니라 목석과 같은 것으로 자기를 규정하는 태도 속에 숨겨진 의미를 재독하게 이끈다. 이러한 태도는 자기부정 속에서 쾌락을 보존하고 무기물적 순수성을 통해 주체 자신을 정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미소>에서처럼 쫓겨나고 배척받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만은 허락받을 수 있는 것은 주체가 무기물적인 존재로 자신을 규정함으로써 대타자의 응시로부터 비껴나갈

13) 슬라보예 지젝, 이성민 역, 『까다로운 주체』, 도서출판b, 2005. 454쪽.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기체로서의 존재 주장은 <신의 희작>을 통해 자신에게로 책임을 돌리기 전에는 주체의 행위들을 세계에 대한 도저한 부정성으로 인식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다. 텍스트를 해석하는 보이지 않는 대타자의 시선이 주체의 욕망을 오인하게 만듦으로써 상징계 내부에서 자신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무가치한 존재 선언이다.

그런 점에서 “가정에 대해서나 세상 일에 대해서나 무관심한 인간”인 봉우는 이 초기소설의 무가치한 존재를 반영하고 있다. 그는 간호사 인숙의 뒤를 쫓는데 인숙이 끔찍하게 여겨도 상관없이 그녀를 뒤쫓는다. 그는 인숙을 사랑하지만 다만 그녀를 바라보는 행위를 통해서만 자신의 욕망을 드러낼 수 있다. 천봉우는 자신의 욕망을 시선 속에 가둠으로써만 그 가능성을 허락받는다. 시선으로 구성되는 봉우의 행위는 향락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그것은 직접 대상에 가 닿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봉우의 이러한 역설적 상황의 의미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봉우처가 보이는 파잉된 성욕과 탐욕이다. 봉우는 자신의 아내에게 얽혀 살지만 그녀에게 어떤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봉우처 역시 봉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며 치과건물을 조건으로 서만기를 유혹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서로 다른 듯 보이는 봉우나 봉우처의 성적 태도는 동일하다. 그들은 모두 현실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상적 존재, 비친한 자신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는 존재를 그 애욕의 대상으로 삼는다. 주체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만이 가능할 뿐 그 실현은 불가능한 상황이 봉우와 봉우처에게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채익준은 텍스트 내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유일하게 반응하는 인물로서 그는 신문에 실린 부패한 사회상에 대한 분개하고 그러한 문제를 서만기에게 토로하지만 실제로는 하는 일 없는 가난하고 무능한 인물일 뿐이다.¹⁴⁾ 병들어 누워 있는 아내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아이들

에게도 무엇 하나 해줄 게 없는 그는 사회의 문제에 대해 분개하지만 그에 관여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인 존재이다. 그러나 무능한 존재임에도 사회적 부패상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소설들에서 등장하는 사회적 공간 속에서 행위하는 인물들을 예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천봉우가 자신의 욕망을 윤희된 내부 공간 내에서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는 그것을 사회적 관계 내로 투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외부로의 지향성을 보존하고 있다. 채익준이 보여주는 사회적인 관심은 주인공 서만기가 가진 긍정성을 이후 텍스트에서 사회적 문맥을 통해 재구성하게 만드는 단서를 제공한다. 주인공인 서만기는 그에 대한 다음의 묘사에서 그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함부로 부딪치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고 자기의 능력과 노력과 성의로써 차근차근 자기의 길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었다. 아무리 놀라운 일에 부딪치거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을 대해서도 도리어 반감을 느낄 만큼 그는 침착하고 기품 있는 태도를 잃지 않는다. 그것은 본시 천성의 탓이라고도 하겠지만 한편 그의 풍부한 교양의 힘이 뒷받침해주는 일이기도 하였다. 문벌 있는 가문에 태어나서 화초 가꾸듯 정성 어린 어른들의 손에서 구김살 없이 곧게 자라난 만기는 예의범절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을 뿐 아니라 미술, 음악, 문학을 비롯해서 무용, 스포츠, 영화에 이르기까지 깊은 이해와 고급한 감상안을 갖추고 있었다. 크레졸 냄새만을 인생의 유일한 권위로 믿고 있는 그런 부류의 의사와는 달랐다. 게다가 만기는 서양사람처럼 후리후리한 키와 알맞은 몸집에 귀공자다운 해사한 면모를 빛내고 있었다.¹⁴⁾

- 14) 이러한 인물 또한 초기소설에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 오는 날>(문예, 1953)에서 불구인 동육에 기생하여 살면서도 목사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허세 속에 살아가는 동육, <생활적>(현대공론, 1954)에서 아픈 딸 순이를 방치해 두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잘 적응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봉수, <미해결의 장>(현대문학, 1955)에서 아내의 고된 밥벌이에 의해 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도 진성회를 결성하여 '국가 민족과 인류 사회를 위해서 진실하고 성실한 일'을 하자고 역설하는 아버지 등은 채익준처럼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행할 능력은 가지지 못한 인물들이다.

서만기에 대한 이와 같은 서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현실감 있는 인물이라기보다 관념적으로 구성된 이상적 존재라는 사실이다. 그는 어떠한 결핍도 없는 인물로서 그에 대한 묘사는 전형적이며 이상적이다. 달리 말한다면 그는 어떤 추상적 긍정성이 형상화된 존재라 할 수 있다. 서만기에게는 사적인 욕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는 텅빈 기표인 동시에 천봉우와 채익준이 가진 문제들이 수렴되는 충만한 주인-기표이다. 그를 의지하는 아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형부를 흠모하는 처제 은주, 그를 향해 관능적인 유혹의 손길을 보내는 봉우 처, 병원 문제로 고민하는 만기를 위로하고자 하는 간호원 인숙의 시선이 모이는 지점에 서만기가 위치한다. 채익준의 죽은 아내를 장례 치르는 것도 서만기라고 할 때 여기에는 그의 인격적 완성을 능가하는 어떤 충만함이 있다.

그는 병원의 부실한 재정을 빌미로 접근하는 봉우처의 집요한 애정공세를 거절하는데 그의 감정에는 어떠한 성적인 동요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봉우처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힘겹게 병원을 꾸러가고 가족과 친구들을 보살핀다. 손창섭이 그려내었던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이러한 긍정적 존재로서의 서만기는 성적인 욕망이 소거된 주인기표의 자리를 통해서 천봉우와 채익준의 욕망을 흡수한다. 천봉우의 무기력한 시선과 채익준의 격한 분노가 병원 응접실에서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주체의 모든 욕망이 수렴되는 곳에 존재하는 것은 윤리적 태도로 주어지는 서만기의 금욕적 면모이다. 서만기는 <잉여인간>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욕망을 윤리적인 이상을 통해 수렴한다. 천봉우의 허락받지 못하는 욕망은 이 욕망의 금지를 통해 형식적으로 해소된다. 이것이 형식적인 것은 서만기에 의해 의미화 되는 이 윤리적 태도가 사적 공간 내에 유폐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만기에게는 상징계적 관계로

15) 손창섭, <잉여인간>, 『사상계』, 1959. 10. 385쪽.

규정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의식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자아 이상의 형식만을 갖추고 있다. 서만기는 상상계적인 주체의 유희된 의식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닫혀 있다. 서만기는 자신을 둘러싼 인물들의 문제를 사회 현실의 문맥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완전성을 통해 해소시킨다.

서만기의 긍정성을 통해 서사 속에서 기입되는 것은 금욕적 태도의 의미 변화이다. 초기소설에서 나타났던 무기력한 금욕은 이제 윤리적인 의미가 부여된 금욕으로 변화한다. 이때의 윤리성은 형식적으로만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형식적 긍정성이 선 정립되어야만 하는 것은 긍정의 가능성을 금욕의 방식으로 전면화함으로써 그 속에서 행위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젝의 지적처럼 프로테스탄티즘이 구교에서 사제에게만 제한된 금욕을 모든 종교 구성원들에게 개방시킴으로써 그 의미를 자본 축적의 정당성으로 전도시킬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형식적 긍정성은 주체가 상징계적 질서 속에서 행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다. 초기소설에서 무기체적인 존재부정 속에 내재해 있었던 향락에의 욕망은 이제 현실 속에서 가능한 것으로 전화되는데 그것은 금욕적 존재가 그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실에서 서만기와 같은 금욕적 존재로 주체가 자신을 정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로부터 행위의 가능성을 얻었다고 할 때 주체의 행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 하나는 즉각적으로 촉발된 주체의 자기부정이다. 주인-기표로서의 서만기는 형식적 긍정성을 제시하며 그것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완수하는데 그것이 현실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일차적으로 그것은 주체의 철저한 자기부정으로 터져 나온다.¹⁶⁾ 서

16) <신의 회작>에서 주인공 S를 묘사하는 다음의 대목과 서만기에 대한 묘사의 극단적 대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 번도 제대로 손질을 해본 성실치 않은 봉두난발에, 과도히 작은 머리통, 기품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검고 숙된 얼굴 모습, 정채 없는 희멀건 눈, 불안하게 길고 가는 목, 본새없이 좁고 찌그러진 어깨,

만기와 같은 완전성이 현실 속에 주어질 때 주체의 모습은 더 큰 참담함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참한 현실에 대한 인식은 현실 비판이 기 전에 우선 자신에 대한 비난의 형식을 취한다.

<신의 회작>에서 보이는 과잉된 자기 폭로는 그 폭로가 수행되는 것과 동시에 일시적인 욕망의 해방을 낳는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부정성은 서만기로 상징되는 긍정성이 형식적인 것에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체의 즉자적인 반응과 증상만을 드러내 보여줄 뿐이다. 모든 문제를 자신의 삶의 궤적 속에 남겨진 원환상의 차원으로 되돌리는 것은 자기부정을 기괴한 도착증적 의식의 문제로 간주하게 만든다. 모든 문제를 병적인 개인인 ‘작가 s씨’의 문제로 돌림으로써 오히려 주체의 내밀한 향락은 은폐될 수 있다. 주인공 s는 상징계적 관계 속에 진입하지 못한, 혹은 무의미한 ‘년센스’와 같이 잘못 기입된 존재로 자신을 내보임으로써 그 속에 향락에의 열망이 없음을 주장한다. 그 귀결은 자신을 ‘신의 회작’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이는 다만 개별 존재의 문제로 환원된다. 여기에 자기긍정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다만 그가 자신의 행위 속에 내포된 가치를 은밀하게 내보임으로 해서이다.

s는 이처럼 악착스럽고 잔인한 데가 있었다. 그러나 그 악착함과 잔인함은 우습게도 일종의 의협심에 뒷받침되어 있었다. 대개의 경우 자

게다가 팔이라는 건 이게 양쪽이 아주 짝짝이다. 그밖에 억지로 뽑아 늘인 듯이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동체며 다리, 어느 한 구석 정상적인 엄격한 인간 규격에 들어가 맞는 품모는 도시 아니다.”(손창섭, <신의 회작>, 앞의책, p.410.) 이러한 인물 형상화는 주체 자신을 왜소하고 기괴한 모습으로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이 도착적이고 파괴적인 것일 수밖에 없음을 은밀히 주장할 수 있게 한다. 즉 ‘그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작자의 육체적·정신적 기형성에 연유한 것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서 주체는 주체로 정립되지만 무가치하며 존재가치를 지니지 않는 존재인 까닭에 그러한 가학적인 행위를 승인받는다. 달리 말한다면 자신의 주체성을 빗금침으로써 그 보상이나 행위의 가능성을 연다.

기보다 약한 자와 싸우는 일은 없었다. 반드시 강적과만 붙었다. 그리고 요즘의 불량소년들처럼, 이유 없이 트집을 걸어가지고 남을 치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과장해 말하면 불의와 부정을 응징하는 정의의 용사였던 것이다. 그는 숙명적으로 인간 사회에 있어서 피해자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기에 언제나 피해와 모욕에 대한 복수의식에 불타고 있었던 것이다.¹⁷⁾

이 대목은 s가 부당하게 복종을 강요하고 자신에게 폭력까지 휘두른 선배에 복수를 행한 에피소드를 언급하고 난 후 제시된다. 그는 자신이 항상 강적과만 대결했으며 ‘요즘의 불량소년들처럼, 이유 없이 트집을 걸어가지고 남을 치는 일’은 없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과장해 말하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자신을 ‘불의와 부정을 응징하는 정의의 용사’로 평하고 더 나아가 ‘숙명적으로 인간 사회에 있어서 피해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강조한다. 여기에 여자에 대한 성적 폭력의 문제는 제외되는데 성적인 악행이 그 자신의 기형적 존재성의 문제로 되돌아가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서술자인 s는 자신을 소극적이거나 ‘불의와 부정’을 응징하는 존재로 그려내지만 그것은 언제나 자신을 부정하는 맥락 위에서 그러하다. <신의 회작>의 전체적인 어조는 자신을 폭로하고 부정하면서 그를 통해 숨겨진 어두운 일면을 철저하게 드러내는 자학성을 끝까지 유지한다. 그를 통해 주인공의 욕망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실현된다.

그런 점에서 다른 하나의 방식, 실제로 더 증상적인 방식은 <낙서족>에서 드러나는 이념과 향락이 착종되어 전개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주인공 도현은 자신의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항상 국가와 민족을 위한 복수 행위와 연결시킴으로써 대타자의 향락을 자신의 것으로 전유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후기 장편소설들의 일관된 서사전략을 형성한다.

17) 손창섭, <신의 회작>, 앞의책, 422쪽.

3. 고양된 이념과 향락의 착종

<낙서족>에서 사회현실의 문제는 서사의 전면에 위치한다. <잉여인간>에서 주체의 욕망이 가능해지는 자리에 서민기가 놓여 있으나 형식적인 긍정성에 그치며 그것이 현실 속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가능태가 채익준이라 한다면, 공적 이념을 향해 나아가는 채익준의 모습이 서사의 중심에 서게 되고 그것이 서사행위 속에서 구현됨을 보여주는 인물이 <낙서족>의 주인공 박도현이라 할 수 있다.

도현은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벌이는 아버지의 아들로 쉽게 격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은행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사건으로 경찰 신세를 지기도 하다가 경찰의 감시를 벗어나고 행동의 자유를 찾기 위해 일본으로 밀항해 들어온 고학생이다. 그의 의식 속에 항상 자리잡고 있는 것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외지에서 투쟁하시는 부친”이며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인가 큰일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선인 학생에 대한 차별대우에 순간적으로 분격하여 선생을 들이받고 퇴학당하는 사건 이후에 그는 유학생들 사이에서 영웅적 인물로 여겨지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노리꼬와 하숙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가 그러한 행위를 민족과 국가를 위한 것으로 합리화시킨다.

이러한 서사에서 주인공의 행위 양식은 두 가지 점에서 이전의 소설들과 다른 방식으로 의미화 된다. 첫째 초기소설부터 후기소설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이 진행되는 장소는 닫힌 공간으로서의 방이라는 점은 주목을 요하는데 손창섭의 소설은 방 안에서 그리고 방에서 방으로 전개되는 사건들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¹⁸⁾ 주체가 내적으로 간혀 있

18) 여기에는 좁은 하숙방뿐만 아니라 「인간동물원초」(문학예술, 1955)나 「육체추」(사상계, 1961)에서처럼 감옥이나 수용시설에 갇힌 인물들을 형상화하는 소설들에서도 특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는 상황은 언제나 좁고 유폐된 공간의 상징성과 더불어 나타난다. <낙서죽>에서도 혁명에의 음모나 폭력적인 성행위가 행해지는 장소가 항상 좁은 하숙방이라는 점에서 이와 동일하다. 하지만 하나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초기소설들에서 주체는 이 갇힌 공간에서 무위 속에 극도의 현실 부정성을 드러내 보이는 데¹⁹⁾ 반해 여기서는 주체의 내밀한 향락을 성취하는 음모와 폭력이 행사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은 그 뒤에 대타자로서의 이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족과 국가를 위한다는 명제 하에서 그는 실현불가능한 음모를 꾸미고 더 나아가 일본여자인 노리꼬를 겁탈한다. 이러한 행위는 그것이 자기혐오를 낳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폐된 공간의 부정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행위가 일차적으로 성취되고 그것이 긍정된다는 사실은 주체가 이념적 승인 속에서 즐기는 향락의 성격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폐된 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실의 외부에서만 주어질 수 있다. 방을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통로는 <미해결의 장>에서 제시된 것처럼 허황된 미국유학의 꿈이거나 정처없이 집을 나서는 행위를 통해서이다. <낙서죽>에서 그것은 더 현실적인 것으로 형상화되는데 독립투사들이 활동하는 만주라는 이념적 공간을 주체 앞에 제시하기 때문이다. 닫힌 공간으로부터 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체 서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그것이 가상적인 형식으로나마 타자와의 소통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²⁰⁾

19) 초기소설에 주인공들은 결말에 이르러 아무런 지향점도 가지지 못한 채 이 무위의 공간을 다만 벗어날 수 있을 뿐이다. 달수에게 혈서를 강요한 뒤 하숙방을 떠나는 준석(『혈서』현대문학, 1955), 춘자와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누이의 집을 무작정 떠나는 ‘나’(『유실몽』사상계, 1956), 중학교 때 제자인 관식과의 불화로 셋방을 나서는 고선생(『설중행』, 문학예술, 1956) 등의 모습에서 보이는 특유한 결말 처리방식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관점이 내재해 있다.

20) 후기소설인 『유맹』(1976년 한국일보 연재)에서 최원복 노인이 이북에 있는 고향을 대리하는 곳이 남한으로의 이주를 꿈꾸고 일본 거주민이 자신의 이상향이

들째, 주인공 도현의 행위를 유발시키는 매개로서의 이념이 서사의 전면에서 기능하는바, 국가와 민족의 독립은 그를 주체로서 호명하는 동시에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욕망을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여기에 멀리에 있는 아버지와 같은 항일 투사들은 도현에게 민족과 국가를 위해 행동해야 하는 이유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김구 선생에 관해서는 그 기백이 어찌나 놀라운지, 번갯불 같은 눈으로 단 일 분만 쏘아보면 아무리 장정이라도 증풍 환자 모양 부들부들 떨다가 일어설 때 보면 사타구니가 축축히 젖어 있었다는 것이다.

“아니 건 왜 그래?” 광욱이 여유를 두지 않고 물올라치면,

“그건 오금이 저려서 모르는 새에 오줌을 깔렸지 뭐야. 그만치 무서운 분이니까 일본놈들두 김구라는 말만 들으면 와들와들 떠대지 않아!”

모친이나 숙부에게서 들은 이런 얘기들을 도현은 물론 자기의 상상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윤색을 가해가지고 들려주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만은 도현은 스스로 감탄할 만큼 유창한 웅변이었다. 광욱은 말할 것도 없지만, 상희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적인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도현은 더없이 만족했다. 좀더 구체적이고 놀라운 비화를 들려주지 못하는 것이 분하고 안타까웠다. 한 번은 도현의 부친은 현재 어디서 누구와 손을 잡고 활동하고 있느냐고 광욱이 물었다. 도현은 서슴지 않고 김구 선생의 신임을 받고 있는 막료 중의 한 사람이라고 했다. 물론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흥분한 도현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²¹⁾

그의 행위를 정당화해주는, 김구나 이승만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은 신화의 차원으로 고양된 것인 동시에 그에 대한 묘사가 유아적인 비현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는 역사적 문맥을 통해

일본 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풀이할 때 역시 이념은 공간 내부가 아니라 도달할 수 없는 외부에 주어지며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이 탈주에의 예감으로 종결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맥락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21) 손창섭, <낙서족>, 위의책, 90쪽.

등장한다는 점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것이지만, 앞서 서만기가 보여준 완전성에 대응되는 것이다. 이 형식적 완전성은 주체 내부의 자아-이상의 차원을 넘어서 현실 속에 투사된 존재로 형상화됨으로 해서 행위를 공적인 공간으로 열어 놓는다. <잉여인간>에서 서만기로 제시되었던 삶의 가치를 담당하는 내용성은 이제 국가와 민족으로 상징되는 이념적 정당성으로 대체되었다. 서만기의 행위가, 욕망이 소거됨으로 해서 형식적으로만 정립될 수 있었던 긍정성이었기에 주체의 욕망은 현실적 결핍을 지닌 주변 인물들의 행위 속에 잠재되어 있었다면 추상으로서의 이념적 정당성은 그것을 수행하도록 주체를 사건 속으로 소환한다. 주체는 자신의 행위 속에서 이념을 실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망을 간접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념이 추상적인 차원에 놓임으로 해서 현실에서의 실현불가능한 이상은 역설적으로 주체의 억눌린 욕망을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긍정성이 존재한다는 환상이 주어져야만 그것이 현실에서 실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잉여인간>에서 채익준이 사회의 부패상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으나 행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이념의 자리가 공백으로 비어 있었기 때문인데 후기소설들에서 이 자리가 현실 공간 외부의 실제성(미국과 만주에서 활동하는 항일투사)으로 주어짐으로 해서 박도현은 행위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대타자의 향락을 자신의 것으로 전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역사의 공간 속에서 성취될 행위는 끊임없이 유예되고 예감될 뿐 현실 속에서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도현이 즉흥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행위의 진정한 의미를 질문받을 때 그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난 정말 더 이려고만 있을 순 없다. 즉시 행동을 개시하구야 말테다!”

결코 처음이 아닌 도현의 이 행동 개시의 선언은 병호와 광육을 만족

시키고 더욱 흥분케 하는 대신 상희에게는 불안을 더하게 했다. 대체 어떠한 행동에 착수할 것이냐고 상희가 조심히 물었을 때 도현은 대답이 안 나와서 머뭇거렸다.

“건 연구중입니다!” 겨우 도현은 그렇게 대답했다.²²⁾

‘눈부신 <행동>’, ‘대 사회적인 <행동>’, ‘대 국가적인 <행동>’을 하자고 자신에게 항상 다짐하지만 그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점이 문제시될 때 그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 도현은 끊임없이 <행동> 할 것을 되뇌이고 또 행위하지만 그것은 욕하는 성격에서 나온 돌발적인 개입이거나 다이내마이트를 만드는 것과 같이 비현실적인 것일 뿐이다. 그는 조국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 그에게 실재감을 주는 유일한 행위는 이성을 잃은 상황에 행하는 폭력과 성행위일 뿐이다. 그것은 죄의식을 동반하는 것인 동시에 그가 이념과 일치되는 고양된 순간을 맛보게 한다. 격분하여 일본선생과 경찰을 들이받는 행위나 일본 여자를 범하는 행위는 민족을 위한 복수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주체가 대타자의 향락을 자신의 행위를 통해 대리하는 것도 이 순간이다. 이러한 즉흥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그는 공적인 영역으로, 상징계로 진입할 수 있다.

이념이 행위를 긍정하게 하고 그것이 주체의 향락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이러한 과정은 주체로 하여금 초기소설 속 인물들이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대상을 향유할 수 있게 허락한다. 도현이 노리꼬를 겁탈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것이 민족과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라는 방식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적 환상 속에서 주체가 향락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술의 차원은 그 내적인 자기기만을 계속적으로 암시하면서도 그 행위를 부정하지 못하는 당혹스러운 장면들을 끊임없이 연출한다. 이것은 텍스트의 모든

22) 손창섭, <낙서족>, 위의책, 93쪽.

영역에 전염되는바 이념의 정당성과 윤리성을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대타자의 향락의 형식으로 주어진 주체의 내밀한 쾌락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 의미에서 <낙서족>은 작가의 자기비판인 동시에 이념에 대한 비판의 차원을 획득한다. 손창섭의 후기소설들을 문제적으로 만드는 것은 주체의 향락을 자기부정 속에서 포착해내고 있는 이 같은 분열의 지점들이다. 그의 후기소설들에서 민족, 국가, 독립의 문제가 주제로 제시될 때 사회적 상징적 공간 속에 주체가 처하는 자기 분열의 순간들이 나타난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이념적 가치를 통해서 정당화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가 공격적이며 성적인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얼마나 자기기만적인 것인가 하는 점이 동시에 드러난다.

4. 결론

본고에서 살펴본 것은 손창섭 소설의 극적인 변모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며 그 내적인 기제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다. 손창섭의 초기소설에서 나타나는 무기력한 주체의 형상은 욕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함으로써 내밀한 향락을 감추는 것이었다면 <잉여인간>을 기점으로 그 향락을 긍정성 속에서 정립해 나감으로 주체는 대타자의 향락의 형식을 빌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점에서 <잉여인간>에서 보이는 금욕을 통한 형식적 긍정성은 ‘사라지는 매개자’로서 후기소설들의 변화의 단초가 되는 것이다. <잉여인간> 이후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취한다. 그 하나는 <신의 희작>에서처럼 극단적인 자기 폭로의 방식이다. 여기서 주체는 이 형식적 긍정성에 비추어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과도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 부정성 속에서 윤리적 제한과 금욕의 경계를 넘어선다. 주체 자신을 인간 존재에

미치지 못하는 괴물적 존재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외부로 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나의 방식은 이념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그의 후기소설들에서 주체는 이념을 자신의 것으로 전유하여 사회적 공간 속에서 행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념적 자리가 마련됨으로 해서 <낙서족>의 주인공 박도현은 자신의 욕망을 긍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은 일종의 자기기만을 내포하는데 성적 욕망을 타자에 대한 공격성을 통해서 성취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인공은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 부정의 감정에 시달리게 된다.

초기 소설의 인물들이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욕망을 응시하고 있을 따름이었다면 후기 소설에서 인물들은 사회 속에 자신을 기입한다. 현실에 대한 부정은 후기에 오면 어쨌든 현실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하는 것으로 변화된다. 이 변화를 이끄는 단초가 된 것이 금욕으로서의 형식적 긍정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긍정성은 다만 추상적인 긍정일 뿐이다. 주체는 이 추상성을 넘어 욕망의 실재를 직시해야 한다. 손창섭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대타자의 향락 속에 내포된 주체의 자기기만과 외설성의 문제가 서사문맥 속에 기입될 수 있는 것은 손창섭이 주체 속에 내재한 이러한 모순을 자기부정의 과정을 통해 포착해 내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진호, 「재일 한인들의 수난사 : 손창섭의 『유맹』론」, 『작가연구』, 새미, 1996. 138-158쪽
-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89-106쪽
- 김우중, 「동인상수상작품론」, 『사상계』, 1960. 2. 257-259쪽
- 방민호, 『한국 전후문학과 세대』, 향연, 2003. 205-229쪽
- 백철 외, 「낙서족을 읽고」, 『사상계』, 1959. 4. 315-323쪽
- 조두영, 『목석의 울음』, 서울대출판부, 2004. 20-55쪽
- 조연현, 「병자의 노래」, 『현대문학』, 1955. 4. 79-80쪽
- 조현일, 「허무주의 심연과 극복의 노력」, 『손창섭』, 새미, 2003. 169-191쪽
- 슬라보예 지젝, 이만우 역, 『향락의 전이』, 인간사랑, 2001. 330-335쪽
- , 박정수 역,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사랑, 2004. 391-406쪽

<Abstract>

A Study on Changes in the Meaning of Negativity in Son, Chang-seop's Novels

Lee, Hyun-Suk

This study examined the way qualitative changes in the narration of Son, Chang-seop's novels develop and the internal bases of such changes. Enervated subjects who appeared in his early novels are allowed to gain secretive enjoyment by others by denying their desires. However, in <The Extra Mortals> and other novels written thereafter, the subjects seek their desires in the form of ideology. An important medium for such changes is the establishment of formal positivity through abstinence embodied in <The Extra Mortals>. In his later novels, the establishment of such positivity as 'a vanishing mediator' lays the foundation for subjects' practice of ideology in social space after appropriating it. However, although subjects justify their behaviors based on abstract ideology, they consistently feel guilty and unrest due to self deception committed by them. His later novel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have captured such contradiction implied in subjects' behaviors through their disruptive behaviors.

Key Words : jouissance, negativity, vanishing mediator, ideology, appropriation, other